

그리스도인과 전쟁

손봉호
(대표주간)



한 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이 강력한 첨단무기로 시위를 하고 있다. 김정은과 트럼프는 서로를 없애버리겠다고 “가장 강력한” 언어로 서로를 위협하고 있어 “설마”에 익숙해진 한국인들조차 속으로는 은근히 떨고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외국인과 해외교민들이 훨씬 더 크게 걱정하고 있다.

물론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 일어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에 동참해야 할까?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무기사용을 거부해야 할까?

초대교회는 단연히 거부 쪽이었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행사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고 그 때문에 박해도 받았다. 교부 오리겐 (Origen)은

“그리스도인은 군인으로 나갈 수 없다” 했고 터툴리아누스 (Tertullianus)는 “그리스도인은 검 없이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주님께서 검을 폐지하셨기 때문이다” 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민트 (Clement of Alexandria)도 “검을 든 자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만약 믿는 자가 군인이 된다면 교회는 그를 거부해야 한다. 그가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이다” 했다. 로마의 군인은 모두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했고 황제를 신으로 추앙해야 한 것도 군인이 되는 것을 거부한 중요한 이유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뒤에는 교회의 입장이 달라졌다. 불가피한 전쟁도 있고 심지의 의로운 전쟁도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거기서 “의로운 전쟁이론”(jus bellum

iusum)이 생겨났다. 이미 주전 1세기의 로마 철학자 키케로 (Cicero)가 처음으로 의로운 전쟁 이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기독교에는 아우구스티누스 (Augustinus)가 기독교적 의로운 전쟁 이론을 제시했고 토마스 (Thomas Aquinas)가 그것을 보완했다. 몇 가지 변형들이 있지만 대체로 그리스도인이 전쟁에 참여할 근거는 (1) 심각한 공적 악을 제거하기 위한 것 같이 이유가 정당한 것 (right cause), (2) 한 쪽의 악이 상당히 큰 것이 확실한 것 (comparative justice), (3) 합법적인 권력을 가진 국가에 의해서 시작되는 경우 (competent authority), (4) 오직 불의하게 가해진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것, 즉 의도가 정당하며 (right intention), (5)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 (probability of success), (6) 모든 평화적인 수단이 다 효과가 없으며 (last resort), (7)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전쟁으로 잃을 것보다 월등하게 초과하는 경우 (proportionality)라 하고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키케로도 강조한 국익우선, 즉 자신이 속한 국가의 수호에 대한 조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온 세상의 하나님을 섬기므로 결코 국수주의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전쟁이론에서도 반영된 것이다. 비록 국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도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는 그리스도인이 참여할 수 없음을 함축하고 있다. 나치 정권을 비판하고 심지어 히틀러 암살음모에까지 가담한 본헤퍼 (D. Bonhoeffer) 목사는 그런 원칙에 가장 확실하게 충실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대안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평화주의 (pacifism) 입장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 형제교회 (Church of Brethren), 메노나이트 (the

Mennonites), 퀘이커 (Quakers) 교단과 이단으로 취급받는 여호와의 증인 등이 집총거부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킹 목사 (Martin-Luther King), 톨스토이 등이 기독교적 입장에서 평화주의를 옹호했다.

이런 평화주의는 매우 비현실적인 것 같이 보인다. 바로 우리 발등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평화주의는 비현실성을 넘어서 무책임하기 까지 하다 할 수 있다. 북한군이 서울에 남침해서 무수한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집총을 거부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하겠는가? 우리 가족과 이웃이 불의한 세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가 아위를 지키는 자이니까?” 한 가인의 무책임과 무엇이 다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화주의에 일리가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의로운 전쟁 조건들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고 성경적이라고까지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나치 독일의 경우와 같이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로운 전쟁이론 같은 일반적인 원칙은 현실적으로는 별도로 되지 못한다. 모두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상황과 원칙을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공격을 해 놓고도 방어를 위해 불가피한 “선제공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방어적이다”란 비아냥이 생겨난 것이다. 거기다가 국제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복잡해졌고 국가가 독점할 수밖에 없는 정보기관이 얼마든지 핵심 정보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의로운 전쟁 원칙 같은 것은 완전히 무의미해질 수 있다.

선부른 판단이나 감정적인 미움으로 전쟁분위기를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전쟁을 막기 위한 최후의 전쟁”이란 주장까지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전쟁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고, 북한 정권 내부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

특히 성공가능성의 조건과 전쟁으로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아야 한다는 원칙은 핵전쟁에는 전혀 소용이 없다. 양쪽의 피해가 너무 크고 어느 쪽도 얻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핵을 가진 강대국들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바로 그 때문에 북한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도 기어코 핵무기를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기울이고 존중해야 할 원칙은 모든 평화적 수단이 다 효과가 없을 때만 (last resort)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닌가 한다. 결코 선부른 판단이나 감정적인 미움으로 전쟁분위기를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전쟁을 막기 위한 최후의 전쟁”이란 주장까지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전쟁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고,

북한 정권 내부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 “화평케” 해야 하고 그 노력을 개인 간의 평화에만 국한할 이유가 없다.



글 |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